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복의 근원 강림하사(찬/새28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문경 장로 2부/김백열 장로 3부/김근수 장로 4부/류다빈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송정훈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Lydia Lee **이희주**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누가복음(Luke) 11:14-26.....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7:1-13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Come & See 미라클(9) 더 강한 자가 오셨다

4부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24)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주는 강한 성이요(찬384/새585장), 주의 나라가 임할 때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 하나님의 공의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약한 것이 힘이다

Weakness is Strength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이번 목회자 전략회의는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조금 일찍 모였습니다. 연말에는 새로 오실 후임 목사가 인도하시는 것이 맞기에 후반부 사역을 위해서 함께 뭉쳤습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 택한 장소는 그랜드캐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보지 못한 곳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상대로 우리 모두는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바라보는 경관은 감탄사를 저절로 자아냈습니다.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였습니다. 우리 중 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인 J목사님도 광활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다 보았다 생각했는데, 그랜드캐년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했다 고백했습니다. B목사님은 시종 이번 휴가는 RV를 빌려 그랜드캐년을 가족과 다시 오겠다 희망 사항을 되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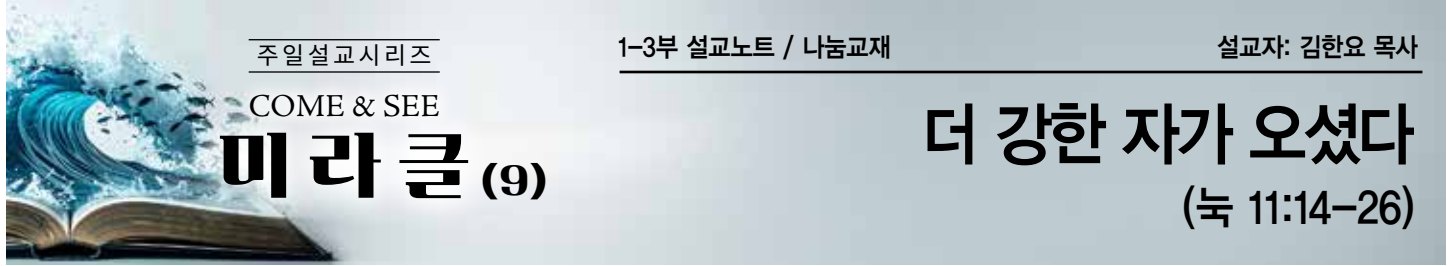
모뉴먼트 밸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을 광야 가운데 붉게 세워 놓으셨는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조각가라도 저렇게 깎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작품은 그 재료가 사암이라 이는 풍파와 비바람에 씻기고 깎이고 잘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철 같은 돌이었다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겠지만, 재질이 근본 약해서 비바람이 들이치면 세월을 두고 깎이고, 약한 부분은 더욱 부식이 심해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한 것이 최고의 미를 만들어낸 비결이었습니다. 밀면 밀리고, 찌르면 찢리고, 치면 맞고, 때리면 깨지면서 하나님은 기막힌 작품을 빚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생을 많이 한 성도들을 보면, 그 얼굴에 인품이 점잖게 베어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이 빚어낸 얼굴입니다. 나의 힘과 욕심으로 빚은 것은 남과 비교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약할 그 때, 하나님은 그의 품격과 매력으로 나를 빚으셨습니다. 사람 인기에 집착한 작품은 잠시 유행 지나면 관심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빚은 작품에는 사람이 끊임 없이 모입니다. 이번 다녀온 그랜드캐년과 자이언캐년은 연간 방문객 수가 평균 각각 500만 정도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온 세계에서 방문객이 이것을 보기 위해 몰려옵니다. 약한 부분이 깎이면서 남은 것이 작품 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을 얼마나 황홀하게 하는지... 그 원리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This year's pastoral strategy meeting gathered a bit early to prepare for the ministry of the second half of the year. Since it is only right that the incoming senior pastor leads the year-end activities, we came together early to focus on the latter half's ministry. The place chosen for this meeting was the Grand Canyon. While it is a place most of the pastors had never been to before, I personally had a strong desire to stand humbly before our great God. And just as I expected, all of us truly became humbled. The view we gazed upon naturally drew gasps of admiration. It was unparalleled and absolute best. Even Pastor J, who used to be a missionary in Africa, thought he had seen all things vast in Africa, confessed that he was speechless and was in awe before the Grand Canyon. Pastor B repeatedly expressed his hope to rent an RV and come back to Grand Canyon with his family for vacation.

No matter how much I think about it, Monument Valley feels like God's greatest masterpiece. The way He erected those red structures in the middle of the wilderness was a wonder. Even a master sculptor could not have carved them like that. However, I came to learn that this beautiful artwork was made of sandstone, meaning it was washed away, carved, and cut by wind, rain, and storms. If it were a stone like steel, it would have remained the same even as time passed. But because its material is fundamentally weak, it eroded over time by wind and rain; as the weaker parts suffered worse corrosion, it transformed into the shape it holds today.

In the end, weakness was the secret behind creating the ultimate beauty. Yielding when pushed, giving way when pierced, taking the blow when struck, and breaking when hit—this is how God shaped an astounding masterpiece. Perhaps that is why when I look at believers who have gone through a lot of hardships, their faces are graced with a gentle character. It is a face shaped by God using time as His tool. What is shaped by my own strength and greed is only used for comparison with others. However, when my strength is weak, God shapes me with His character and charm. Popular artwork loses interest once the brief trend passes. But people endlessly gather around masterpieces shaped by God. I hear that the Grand Canyon and Zion Canyon, which we visited this time, attract an average of about 5 million visitors each annually. Visitors continuously flock from all over the world to see this. How enchanting it is for countless tourists to see what remains after the weak parts were carved away into a work of art... That principle is profoundly biblical.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John 12:24)



1.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 보시고, 오늘 메시지와 연결해 봅시다.(참고/눅 11:5-13)

2.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소위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는 주장에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참고/왕상 18:21, 수 24:15, 롬 6:16)

3. 본문 21-22절과 골 2장 15절과 비교하며 읽어 보시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사건을 통해 알려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나눠 보십시오.(참고/ 히 2:14-15)

4. 예수님이 말씀하는 '빈집의 원리'는 이전 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24-26절, 참고/ 딤후 6:15)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이시며 만주의 ()시요"

■ 적용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찬384/새585장),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적용하기



예배 간증
엘리사 새벽기도회

부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가 열렸던 주중 새벽에 진행되었던 충성목장과 조이목장의 엘리사 새벽기도회를 위해 두 목장이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는 함께 교회와 환우들, 특히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른 새벽에 우리를 위해 갈비탕을 준비하신 목장 도우미 권사님을 비롯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기쁘게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베델교회 50주년 회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은혜 집사(조이목장)

두 목장을 담당하시는 서동민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았던 에스라를 통해 우리도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까지 이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책임도 지시는 하나님임을 에스라를 통해 보여 주십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공급

원래 아침잠이 많은 저이지만, 엘리사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늦지 않게 깨워 주시는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기도를 통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남편도 충성목장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큰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서 사모님과 함께 성도님들께 따뜻한 커피를 준비하며 섬기는 가운데, 작은 손길 하나

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키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자리에서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김은진(충성목장)



훈련 간증
기도학교

7기 기도학교를 마치며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남편의 모교회를 다니며 시댁 식구들과 교회 안에서 소통의 어긋남을 겪어야 했습니다. 양육과 교회 봉사를 쉬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제 영혼이 외로움으로 서서히 메말라 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암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으로 저를 몰고 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해외 주재원 발령을 통해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안고 예배의 자리마다 눈물로 부르짖었지만,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

다. 오히려 과거의 섭섭함에 갇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날카로운 상처를 주는 제 모습 때문에 괴로움과 자책감만 더해 갔습니다. 이 깊은 갈등을 스스로 풀 힘이 전혀 없었기에, 결국 우리가 정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 감정을 먼저 내리놓았습니다. 그때 셀 집사님의 권유로 기도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담당 목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기도문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메말랐던 제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위로가 밀려왔습니다. 14주의 여정 동안 우리 가정에는 기적 같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늘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시어머니께서 먼저 진심 어린 미안함과 따뜻한 축복을 전해 오셨고, 오랜 세월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친정오빠가 다시 말씀

읽겠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 같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 두고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 눈앞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언어도 사랑과 축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들은 등푼길 차 안에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저희 가족 각 사람을 친히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기도학교는 요동치던 제 감정을 붙잡아 준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무력했던 저를 다시 기도의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황영화 집사

Come&See 50 특집 6

베델의 여정

성전 앞을 지키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수많은 희비가 엇갈리는 변화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름다운 베델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희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헌신했던 손목사님을 위시하여 많은 장로님들이 주님 곁으로 가시게 된 시간들이 많은 추억과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주님은 살아 역사하심으로 새 힘을 주셨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비전센터 건축을 시작했고, 뒤이어 본당도 새롭게 건축하게 하셔서 현당 예배를 드리게 하신 기쁨, 많은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순종이 더해졌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베델교회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베델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4대 목사님으로 김한요 목사님을 보내주심으로 2세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이 선교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하셨으니 순종과 실천으로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베델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에 베델교인이 되어 선교팀마다 보낼 누룽지를 만들고, 두 분 담임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와 CD, 또 USB 판매 사역에 봉사하며 현재까지 즐거움으로 친구 권사님과 자리를 지킨 지도 26년의 시간이 어제같이 다가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내 집같이 여기며 깨끗이 사용하고, 교회의 작은 물건들도 소중히 사

용하는 성숙한 베델교인이 다 되길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QT와 아침 영상 메시지가 하루하루를 풍성하게 하시니 이 또한 주님의 큰 선물입니다. 때로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생각합니다.

코트야드에는 매주 파라솔 아래 셀 모임이 펼쳐지고 많은 사역팀들이 활발히 봉사하는 모습에 천국 같은 즐거움과 풍성한 교제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지나온 세월을 추억함을 넘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 건강하고 희생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칭찬하며 감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친구 권사와 함께 건강 지키며, 성전 앞을 지키며, 말씀 배포에 충성하며, 교회의 본이 되며,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베델의 희년을 기뻐합니다.

백창선 권사

사역 간증
예배부

주님의 향기를 담은 헌화(獻花)



주일 아침, 성전의 문을 들어서면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모든 경건함의 요소들 중에 강단을 수줍게 밝히는 꽃들이 있습니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주일 예배의 거룩함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활짝 열어주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아름다운 헌화 뒤에는 우렁각시 같은 헌화부의 소중한 섬김이 있습니다. 현재 헌화부는 예배부팀 안에서 총 5명의 봉사자가 한 팀이 되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명씩 순번을 정

해 돌아가며 섬기고 있으며, 모두가 각자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강단을 예비하는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꽃시장에서 가장 신선하고 고운 꽃을 고르는 것부터 헌화부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꽃 한 송이, 가지 하나를 다듬고 꽃을 때마다 부원들은 이번 주 선포될 말씀의 주제를 묵상하며,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꽃처럼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화부가 봉헌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예배를 향한 간절한 기대감입니다.

비록 꽃은 시간이 흐르면 시들지

만, 그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향기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 텅 빈 예배당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향기로운 제단을 예비하는 5명의 헌화부원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화부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황연주 권사



간증
베델동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이맘때면 늘 보던 후보였지만, 이번 102차 베델 동산은 여느 때와 다르게 제 마음을 크게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참여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과 상황을 신실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먼저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양육반을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 함이 많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믿음의 회복, 가정, 자녀 교육, 경제적 어려움 같은 무거운 기도 제목들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기도 되는 걸까?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는데'

하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막연히 어릴 적 경험한 부흥회 같으리라 생각하며 올라간 베델동산은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봉사자들의 뜨거운 환호와 사랑이 넘치는 환대에 처음에는 어리둥절 하기도 했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부터 마지막 날 모든 순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부어졌습니다. 가지고 갔던 무거운 세상의 고민들은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그 고민들조차도 제게 주신 고난의 은혜임을 깨닫는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넘쳐흐를 때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자녀 교육 등의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안에서 해결될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다녀야 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셨고 좋은 믿음의 인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베델동산은 제 평생 신앙생활의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없이 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 삶의 가장 큰 고민도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늘 기도하려 합니다.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델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작은 교회가 되어 기꺼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2년마다 계속해서

정용철 집사

예삶
청3 수양회

다시 붙들린 시간

저는 예삶에 출석하다가 작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공동체 수양회 소식을 듣고 일정을 맞춰 이번 수양회에 참석하게 된 오승호 형제입니다. 한국에서 소박한 사업을 준비하며 확신이 필요하던 중,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청년들과 다시 수양회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간증 시간에 예전 셀 리더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예삶의 리더들과 사역자님들,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는 제게 신앙과 교회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며 다시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국으로 돌아가, 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승호

제게는 오랫동안 저를 안에서부터 갇아먹어 왔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스스로를 더욱 어둡고 외로운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일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얼마 전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청3 수양회 소식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기 전에는 정리되지 않은 많은 기도 제목들과, 마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저녁 집회에서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들으며,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와 같이, 제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조차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 삶 가운데 있으며,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매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 평화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조차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면, 또다시 우울한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라는 닷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설 새 없이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경민

수양회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동쪽을 뚫다가 '네가 뭔데?'라는 말을 듣고 도망쳤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제가 뭔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는 모습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상처로 남은 '내가 뭔데'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목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어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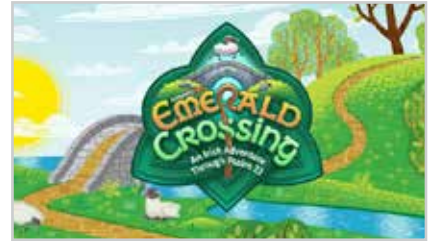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어린이 여름성경학교(VBS)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여름 저희 아이들은 다윗의 삶과 여정을 통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26년 베델교회 VBS는 Emerald Crossing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 VBS 주제구는 시편 23장 1절로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영/유아/유치부 아이들은 각 부서에서 연령에 딱 맞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과 스테이션들이 준비되며 찬양과 말씀을 배우는 즐거운 VBS의 시간을 갖습니다.(30개월 미만 자녀들은 마미앤미로 진행됩니다.) 또한, Kinder부터 5학년까지(25-26년 School Year) 모든 학생들은 학년별로 스테이션들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각 스테이션에서는 바이블 스토리, 스낵크래프트, 사이언스, 크래프트, 게임 등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모두가 기다리는 신나는 카니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Grand Prize는 마지막 날 예배 후에 나눠 드립니다.

VBS 크루리더와 스테이션 리더 봉사자들은 매주 훈련과 모임을 가지며 전력을 다해 VBS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VBS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영/유아/유치부와 4-5학년은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 ▶ 일시: 영아/유아/유치부: 6월 9일(화)-12일(금)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K-5학년: 6월 16일(화)-20일(토) (화-금: 오전 10시-오후 3시, 토: 오전 10시-오후 2시 30분)
- ▶ 등록: register.bkc.org
- ▶ 문의: 영아부-최미정 전도사 (949)738-7225, 유아부-이경은 전도사 (213)842-9329
유치부-전소연 전도사 (562)282-2991, K-1-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유년부-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초등부-이지원 전도사 (213)335-9049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6월)	6/14: ①부-김병인	②부-김병찬	③부-김웅진	④부-전하은
	6/21: ①부-김정윤	②부-김세진	③부-김인규	④부-안지우
	6/28: ①부-김인권	②부-김정태	③부-김원용	④부-이민수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6,7월)	6/13: 현승원	6/20: 오성남	6/27: 이노아	7/4: 윤성식
강단꽃(6월)	6/7: 김종현, 박은유	6/14: 장다혜	6/21: 이지애	6/28: 선상균, 조 궁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석완(심장내과), 간호사-강지원 다음주 | 의사-최지수(치과), 간호사-박수잔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제 13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및 야훼/유영/나팔/Summit/이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나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6월 1일(월)~30일(화) 신청: 장학생 모집 홈페이지(scholarship.bkc.org)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scholarship@bkc.org,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화평 & 운유 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6월 9일(화)~12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 OICOS 예배 특송: 화평 & 운유 목장 (박성권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6월 13일(토) 오전 6시, 본당

◆ 2026 GMMA 컨퍼런스 GMMA 컨퍼런스에 있는 저녁 집회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주강사로 프랭클린 그래함, Dr. Ming Wang(영화 'Sight'의 실제 주인공) 외 3명과 함께 합니다. 일시/장소: 6월 26일(금), 27일(토) 저녁 7시 30분, 본당 강사: Dr. Peter Chung Sr.(President, GMMA), Franklin Graham(CEO Samaritan's Purse) 봉사자 모임 일시/장소: 6월 11일(목)~25일(목)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유년부실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www.gmma7.org

◆ BYM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BYM 중등부는 'Messiah'라는 주제로, 고등부는 'Blueprint of Life'라는 주제로 8월 3일(월)~6일(목)에 각각 열립니다. 등록은 QR 코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중등부 장소: Angeles Crest Christian Camp 중등부 문의: Albert Choi 집사 (714)398-3914 고등부 장소: Palomar Christian Conf. Center 고등부 문의: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등록비: 5월 31일(주일)~6월 14일(주일) \$200(Early bird registration) 6월 15일(월)~28일(주일) \$220(Regular registration)

◆ 초등부 여름 수련회 등록 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Identity: In Christ'라는 주제로 7월 31일(금)~8월 1일(토)에 열립니다. 등록은 QR 코드나 PTA 카톡으로 나간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등록비: 현재 4-5학년, \$120 등록/문의: QR 코드, 김정범 집사 (714) 623-0919

◆ 소망부 VBS 등록 및 봉사자 모집 2026 소망부 VBS가 등록 중입니다. 등록 신청과 섬겨 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7월 21일(화)~24일(금) 오전 9시~오후 3시 신청/문의: QR 코드,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등록) (봉사자)

◆ BYM Qara(영어 중등부) 찬양팀 오디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예배를 섬기고 싶은 6-7학년 학생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보컬,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현악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찬양과 예배를 사랑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YM 8학년 졸업 बैंक 고등부 진급을 앞둔 8학년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졸업 기념 친교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해변에서 함께 즐겁게 지내며 중등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 7월 6일(월) 오후 3시~오후 9시, Corona Del Mar State Beach(집합 및 귀가 장소) 참가비/등록/문의: \$20(6월 14일까지 제출), QR 코드, 최호경 집사 (714)398-3914



◆ 오늘부터 가족(Let's Be Family) 홈스테이 섬김 '야나(YANA)와 협력하여 한국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과 우리 교회 가정을 연결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보호자 남성 한 분을 홈스테이로 섬겨주실 가정을 찾습니다. 섬김 기간/방법/문의: 6월 13일(토)~6월 21일(주일), 홈스테이, 박성규 집사 (714) 423-8607

◆ 일본어 예배 시간/장소 변경 오늘 주일(6월 7일)부터 일본어 예배 시간과 장소가 오전 9시에 샬롬 채플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 김민수 집사 (949)378-0892

◆ 단기선교 펀드레이징 오늘 코트야드에서 캄보디아2(이석배, 김인성 선교사)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BYM 고등부를 위한 선교 펀드레이징이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오늘 3부 예배에 이연중/심지혜 성도의 딸 이희주(Lydia)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황애순 권사님(황 준 성도의 모친)께서 5월 30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정선 집사님(이지은 집사의 모친, 이진환 집사의 장모)께서 6월 4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예살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주일 레위기 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편집장: 김경자 권사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사진 기자: 박성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1. Please read what comes right before today's main passage and try to connect it with today's message. (Ref: Lu 11:5-13)

2. The incident where Jesus drives out a demon that makes a person mute triggers the so-called 'Beelzebul controversy.' Jesus' conclusion regarding the claim that He drove out demons by the power of Beelzebul, the prince of demons, is found in verse 23. What kind of message is this giving us? (Ref: 1 Ki 18:21, Josh 24:15, Ro 6:16)

3. Please read and compare the main verses 21-22 with Col 2:15 and share what message Jesus is teaching us through the incident of driving out the demon. (Ref: Heb 2:14-15)

4. The 'Principle of the Empty House' that Jesus speaks of describes a state that has become worse than before. Let's discuss what kind of cases there might be. (vv. 24-26, Ref: 1 Tim 6:15)

"which God will bring about in his own time—God, the blessed and only Ruler, the () of kings and () of lords,"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